

지역 매아리

# 박준배 시장 “태풍 대비 우선”

### 김제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김제시 민원소통과(과장 안홍순)에서는 올해 국가지점번호판 35점을 모악산 등산로 일원에 설치하여 시민이 재난, 응급상황에서 위치표시를 이용, 응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에 46점 설치에 이어 향후 5개년간 연차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의 레저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위치 찾기는 여전히 불편하고 특히 논, 밭 등 비건물 지역에서 밭, 응급구조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현행 지번주소는 현장의 위치표시가 없어 응급신고 시 활용이 곤란하고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는 곳에 한정 된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판 위치를 소방, 경찰과 같은 응급, 범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보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교월동, 코스모스 꽃길 조성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2일 교월동 생활개선회,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 축제장 진입로 구간을 포함한 16km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이날 특별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0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의 낭만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코스모스 식재 예정지에 대한 제작작업 및 경운작업 등 정치작업을 실시하였고, 지평선축제 기간에 맞춰 코스모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잡초 제거, 보식작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백구면 소외계층 실버카 전달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2일 관내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와 실버카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적인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에 지원 받은 세대는 독거노인 이요순 씨를 포함한 20세대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과 실버카(보험보조기)로 구성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장 취임식,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등으로 대체... 재난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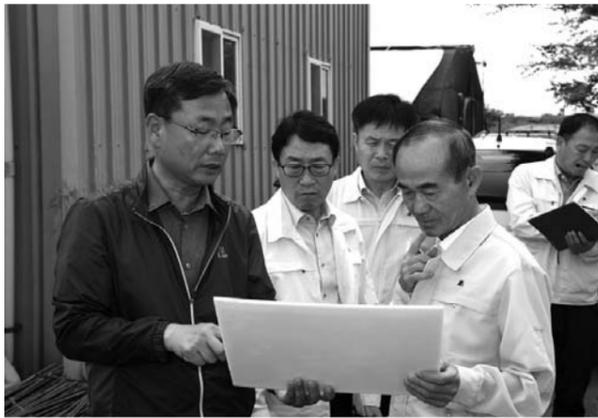
김제시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준배 김제시장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태풍대비에 시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시민 초청 취임식을 취소하고 내부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와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등 꼭 필요한 절차만으로 취임식을 대체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 뿌리베론의 복상에 따라 시민 안전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군경묘지와 충혼탑 참배 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재난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해 시민안전과 태풍피해 예방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렴달사(淸廉達事)라는 말처럼 청렴한 사람만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통달하여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를 함께 해결같이 시민들에서 시민과의 소



김제시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준배 김제시장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중한 약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인사혁신, 지역 인재 육성, 새만금 세계경제 자유기지 기틀 마련, 농특 6차산업 선도,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체육관광도시 브랜

드 창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중행정 실현 등 정의로써 경제도약하는 김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성일 군수, 15만 완주시 대도약 시작

### 민선7기 취임식 생략... 월례조회 업무시작 “으뜸 자족도시 만들 것”

민선7기 박성일 완주군수가 2일 취임식을 갖고, 15만 완주시 도약의 시동을 걸었다.



재선에 성공한 박 군수는 별도의 축하행사를 열지 않고, 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 후, 월례조회를 시작으로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월례조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연 박 군수는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박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민선 7기는 군민소득도 더 올리고 삶의 질도 더 높여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으뜸 완주,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이루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민선7기에는 민선6기의 정책들이 유지하되, 새로운 핵심공약과

변화된 정책상황을 예고했다. 우선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도피아 완주 3대 비전과 으뜸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 안전도시 3대 핵심과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중소기업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맞춤형 행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완주형 사회적 경제인 소셜굿즈,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상봉웰빙시티, 복합행정타운, 미니북한타운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등 30만 규모 도시기반,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50만 대도시 수준의 삶의 질, 완주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이전, 고루 잘 사는 완주를 만드는 지역균형

발전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존중받는 완주, 평화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완주,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완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 완주,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청년 메카 완주, 안전하고 건강한 생명도시 완주를 차근 차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군수는 “민선6기가 지나온 100년을 기반으로 자족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린 시기라면, 민선7기는 이를 바탕으로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는 자족도시의 틀을 갖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완주의 원대한 목표인 15만 완주시 대도약에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역주민, 8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으뜸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진달래 할매의 인생 담다

### 교육부 공모사업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 추진

완주군이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으로 민화&북아트 앨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완주군은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으로 ‘진달래 할매들의 인생을 담은 민화&북아트 앨범 만들기 프로그램’을 어르신 한글교실 6개 학습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며, 한글과미술을 연계한 통합교육이다.

앨범에는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 인생 손글씨를 담은 시화집, 인생의 좌우명, 희망직업 명함, 인생 버킷리스트, 나만의 음식레시피

등을 담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추억을 한권의 앨범으로 만들어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부문에 ‘진달래할매들의 인생을 담은 민화&북아트 만들기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으로 지역의 예비주민강사 ‘삼삼오오하하행(평생학습동아리)’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단순한 한글교육을 넘어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성인문해 특성화 수업으로 민화&북아트 앨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 완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

완주군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일 완주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안전관리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고산면사무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물놀이 안전시설물 관리법, 현장 활동·안전수칙, 인명구조 요령, 인명구조 장비사용법, 심폐소생술 시연 및 실습 등 안전사고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인해 일찍 찾아온 여름철을 맞이해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에 대해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부터 물놀이 관리지역에 3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인명피해 ZERO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완주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통한 물놀이 관리 지역 내 안전지도와 단속, 환경정화 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WANGUWON